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6강, 고린도전서 서론, 1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6강, 고린도전서 소개, 1부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 여행의 여섯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직면하게 될 큰 철학적 해석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소개의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교한 노트 세트를 드렸습니다. 노트 패킷 번호 5에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약 30페이지 분량의 노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거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슬라이드 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대 세계의 여행 가이드와 같은 사람들의 인용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고린도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는 주요 주석에서 고린도전서 서론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중 많은 분이 Garland의 주석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학습자에게 매우 읽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언어는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귀찮을 언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좋은 서론을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만 강조할 것이고,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코린트 도시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지리적 특징입니다. 코린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 도시였을까요? 글썄요, 바울 당시 코린트는 동서의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육로나 해로로 상품을 이동시켰습니다.

지중해는 매우 불쾌한 수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해군에 있었고, 구축함에 있었고, 지중해에 있었을 때 지중해가 얼마나 빨리 뒤집힐 수 있었는지 여러 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작은 수역입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움직이는 대신, 이 모든 휘저은 물이 생기고, 그것은 매우 거칠 수 있습니다. 글썄요, 고대 세계에서 항해와 돛을 사용하는 것이 보트를 운항하는 주요 방법이었을 때,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라고 불리는 남쪽을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우세한 바람이 당신을 생존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열린 바다로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장소였고, 같은 이유로 바울 시대에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상품화 도시였습니다. 교차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유를 들어 해군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행하는 선원들이 배를 떠나 배를 타고 파티를 하기 위해 이 지역을 지나갈 때면 여러 번 거친 곳이었습니다. 이제 20페이지의 지리 개념에서 지협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협이 위치한 곳입니다. 코린트는 에게해에서 동쪽 지역으로 가기로 선택한 이 경로 바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3마일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센크레아에 정박할 배를 몰고 온 다음, 수레와 동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건너 다른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원들은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보호된 수역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린트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자연 지형 때문에 주요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바울 시대로부터 거의 2,000년 후인 1800년대에 그들은 실제로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지금은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현대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는 두 수역을 연결하여 배가 하역한 다음 다시 싣는 대신 3.5마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코린트는 이 지리적 환경에서 상인, 즉 이 배에 붙어 있는 선원들에게 그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도시였고, 약간 거칠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그 잔여 조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린도 두 곳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이고 고대의 고린도가 있고, 신약 시대, 바울 시대의 고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세기에 고린도는 로마에 저항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알렉산더 그리스인의 정복 이후 고대 세계의 지배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Mummius Achaicus 라는 장군이 코린트에 와서 그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코린트는 주요 변화한 도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4년, 사실 약 100년, 실례합니다, 기원전 44년에 그 도시는 로마 식민지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 식민지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이제 로마는 그리스적인 모든 것을 인수했고 그리스적인 것들을 크게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법률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집단이 전쟁을 통해 확립한 광대한 영토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리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고대 세계에서 위대한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고린도를 점령하여 그리스도 시대보다 약 50년 전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 100년도 채 안 되었지만 그에 가까운 시기,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증거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는 다시 한번 매우 변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상당 부분은 해군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국제 무역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를 들어, 서론에서 그것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Garland를 읽으면 그는 바울이 로마 식민지였던 시대의 고린도가 주로 그리스 식민지였던 기원전 2세기의 고린도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훌륭한 섹션을 제공합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사는 것은 어땠을까요? 글썄요, 고린도 도시에 대한 증언이 살아남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중 하나는 항상 읽는 자료의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 고린도가 아닌 고린도를 묘사하는 고대 자료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전 고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도착한 100~200년 후의 고린도가 아니라 그리스 고린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대 연구를 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는 수십 년과 관련된 출처를 연구해야 하며, 수백 년 전이나 수백 년 후의 출처는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 시의 기록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전적 코린트나 로마 코린트. 또한,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21 페이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코린트에 대해 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희극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아테네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와 코린트는 여러 면에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도시였지만, 고대 세계와 심지어 로마 세계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아테네 지지자였기 때문에 Corinthianizer 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 그리고 그의 희곡에서 그는 그리스어로 Corinthianiz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골적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자면 코린토스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들을 연극과 관련하여 코린토스의 어떤 측면에서 그럴 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린토스 주의자 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성적으로 난폭한 사람이었고, 코린토스주의자는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읽는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글썬요, 얼마나 나빴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리스토파네스는 아테네를 좋게 보이게 하고 코린토스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읽을 때, 당신은 항상 이 작가가 누구를 선호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한 도시를 다른 도시보다 비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코린트는 그 맷돌에 충분한 곡식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글을 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코린트를 연구할 때 중요한 시간적 요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성적으로 관련이 있는 코린트의 비너스 숭배의 일부였습니다 . 고대 코린트는 천 개의 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기원전 2천년 이전의 그 고대 도시에 있던 사원 매춘부입니다. 글썬요, 바울이 온 도시가 그 도시였을까요? 바울이 온 도시에 그 사원 매춘부가 천 명이나 있었을까요? 파괴되었다가 재건되고 재건립되어 바울 시대에 기능했던 그 사원의 본질에 대한 200년 된 증언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연속성이 존재하지만, 숫자가 몇 개인지 사이에는 아마도 많은 불연속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명명법을 듣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원 매춘부. 매춘부라는 단어는 무거운 용어이며, 기독교 도덕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부정적인 도덕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종교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바알 숭배가 있는 곳에서, 바알 숭배는 다산 숭배였습니다. 그 사원과 종교적 실행에서 성적 측면은 다산의 깊은 측면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이고, 물론 기독교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것이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바알을 피에서 빼내는 데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 관행에 성적 매력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호세아서 3장에서 고멜이 바알 숭배의 종교적 관행에 연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사원 매춘부, 사원의 애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사할 다른 시간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와 고멜이 있습니다. 고멜은 실제로 그녀를 성전에서 다시 사서 거의 재산처럼 데려가서 그녀를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사이의 관계와 이스라엘과 고대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갈등을 주님을 따르고 거짓 신을 따르지 않는 데 어떤 종류의 갈등이 수반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는 2천년의 그리스 종교에서, 그리고 로마 종교와 그 잔재에서 아프로디테 숭배와 비너스 숭배가 코린트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일은 확실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여행 가이드 작가였던 스트라보는 코린트를 사랑의 도시로 묘사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는 고대 고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 200년 전,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파괴되고 재건된 도시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도착한 도시에 대한 증거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확실히 넓게 펼쳐진 장소였으며, 유대교 기독교 사상의 도덕적 질서에 확실히 맞지 않는 고대 종교를 자랑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머피 오크너는 많은 신약 서론과 주석이 이 측면, 즉 고대 고전 고린도를 강조했음을 올바르게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5-7장에서처럼 성적, 도덕적 문제가 일어나는 특정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증거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연구의 일부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로마 도시였고, 넓게 개방되어 있었고, 여전히 그런 종류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증거에 대해 조심합시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코린트 도시에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문설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문설주 위에 놓을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진흙, 돌로 된 구조물이었습니다. 파괴되었을 때, 여러 번, 그 돌들은 깨졌습니다. 글썬요,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돌을 발견했고, 저는 21페이지에서 중앙 바로 아래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돌이 깨졌습니다. 문의 꼭대기 돌이 깨졌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회당이 앞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자와 히브리인이 뒤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자였습니다.

우리는 중간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깨졌지만, 우리는 두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에 히브리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가 유대인의 의견과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필로가 그의 디아스포라 목록에 고린도를 포함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글에서 해외로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필로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바울의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조사해야 할까요? 회당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고대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가족이 10가구일 때 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회당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운영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생각해보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과 관련된 사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하고 두루마리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의 여러 단계에서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이제, 그 측면에서,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의 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권위와 전문 지식의 영역이 고대 사본과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그 고대 세계의 어느 곳으로든 가져가서 권위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후의 그리스 세계든 로마 세계든 어디를 가든 유대인 공동체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사원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을 위한 사원이 하나 있었지만, 회당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였고, 그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했을 사람들은 고대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관점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과 로마의 고린도를 구별하고, 이 도시들에 대해 기록한 역사학자들을 구별하고, 그들이 기록한 시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도시에 대해 제공한 정보가 도시의 유물이든, 도시의 예배와 종교이든, 그에 대한 올바른 시간 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도시의 그리스-로마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역사, 그 삶의 상황, 그러나 그것은 로마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arland의 서론이 등장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특정 책을 찾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노트에 이 중 일부를 강조했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서 제가 이 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시간과 장소에서 쓰여졌는데, 실제 세계와 사람들이 있고, 아테네와 코린트와 같은 곳에 존재했던 모든 고대 다신교 종교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그것은 아테네에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쉬웠다고 말하고, 그들이 그 인용문으로 의미하는 것은 신에 대한 많은 조각상, 신에 대한 많은 작은 기념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친 이 조각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조각상은 실제로 아테네에 퍼진 전염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 일종의 외부에서 온 예언자 사제를 데려왔습니다.

전염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공을 돌렸지만, 어떤 신에게 공을 돌릴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이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에서 그들을 구해줬을지도 모르는 신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나타나서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아테네 시에서의 일화로 사용합니다.

글쎄요, 고린도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곳곳에 작은 예배 센터가 있고, 사람들이 고대 신들 중 하나나 다른 신들 주위에 모여

공동체를 만들었고, 야훼 주위에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많은 종교 중 하나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세상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유대교 종파로, 유대교의 한 측면으로 여겨졌는데, 유대교의 발전 과정에서 조상인 유대인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 중심에서 태어났고, 따라서 종종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많지는 않지만, 로마 총독이 기독교인을 그런 식으로 여긴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들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종류의 세계였을까요? 글썄요, 여기 있는 요점을 아주 빨리 보세요.

성경은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관습 내에서 그 시대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성경을 원래의 맥락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맥락이 지리적, 역사적, 문학적 또는 언어적이든, 그것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탐구하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영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맥락이나 미국의 맥락, 아시아의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세계의 맥락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읽을 때 그 세계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서신입니다.

서신이라는 단어는 편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서신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그룹, 회중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 일부는 그가 세웠고, 일부는 그의 동료들이 세웠으며, 어쩌면 그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가 방문한 장소도 있었고,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장르입니다. 장르, 장르라는 단어는 일종의 문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는 일종의 문학입니다. 서사는 일종의 문학입니다. 서간은 일종의 문학입니다.

나는 서신을 일방적인 전화 대화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내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녀의 대화만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제게 여러 가지 일을 자원해서 해준 것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전화를 받았는데, 잘못된 번호였지만 그 사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제 남편이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글쎄,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녀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거의 모든 일에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과 그녀가 하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절반만 듣고 있고, 내가 듣는 것은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게 되고, 온갖 수신호를 보내며, 자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끊고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절반만 들었고, , 전화의 다른 쪽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은 서신을 읽을 때마다 대화의 절반만 듣고 전화의 다른 쪽은 듣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읽거나 듣는 것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이러한 질문에 신중하게 답할 수 있도록 사물에 대한 더 재구성된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문제의 많은 부분입니다.

서신은 읽기 매우 매우 쉬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서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기만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가정함으로써 성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 시대와 장소, 독자,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 확립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내 상황에 의미하는 바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간은 편지이고, 여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서간은 가끔씩 쓰는 문학입니다. 21페이지의 인용문에서, 그리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말했듯이, 저는 제 노트를 칠판처럼 사용하고,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일어나서 칠판에 가끔씩 쓰는 문학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편지라는 문학 장르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가끔씩입니다. 그것은 청중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작가가 알고 있는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쓰여지지만, 당신은 원래 청중의 관점에서 청중이 아니고, 당신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적절하게 그것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가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은 삶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은 실수의 어머니입니다. 가정하지 마십시오. 가끔 문학은 어떤 경우에 쓰여지고, 당신은 그 경우에 대한 단편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우에 대해 매우 부지런히 분석하여 작가와 청중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읽을 것이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들을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한 그리스 세계를 흡수했습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의 측면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레네 는 그리스어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화 되었다는 뜻 이고, 알렉산더 대왕은 흥미로운 정복자였습니다. 역사상 그 특정 시기에 알렉산더를 보지 않았다면, 또 다른 좋은 독서 취미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책을 사서 알렉산더가 형성한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속에서 신약이 조금 후에 등장하게 된 것을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헬레니즘은 그 그리스 세계에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더 큰 세계에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인들이 정복한 그 거대한 세계에서 온갖 잔여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공백을 메우고 고대 세계의 지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약의 세계에 대해 읽을 때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석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주석조차도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가 있는 곳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출처에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Garland는 Baker의 책 3~13페이지에서 Corinth 시의 일부였던 로마 유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22페이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식민지는 로마 문화, 종교, 가치의 위엄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법이 그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상업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와, 고대 세계였구나, 걸으며,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다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는 게 끔찍했을 겁니다.

글쎄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한때 로마 도로라는 책을 주문하던 도서관에 책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로마 도로 지도는 어느 주요 국가의 고속도로처럼 보였어요.

사실,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리스, 그리고 그 고대 세계 전체에 가서 수세기 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건설된 로마 도로의 잔여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위대한 도로 건설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고대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수년 전, 저는 기원전 2천년의 몇 가지 이슈를 조사하던 중 메소포타미아에서 렌터카 사업 소유자 관련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을 임대하는 U-Haul 렌탈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트럭들은 전국을 여행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트럭은 뉴욕에서 허가를 받았고 캘리포니아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고대 세계에서는 그 카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임대되었습니다. 이 상인은 지중해에서 돌아오지 않는 카트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카트를 빌려 지중해 연안으로 가져갔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여행을 갈 때 트럭이 지나가는데, 트럭에는 U-Haul 렌탈 트레일러가 잔뜩 실려 있는데, 원래 출발지로 다시 옮겨지거나, 균등하게 분배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대 세계는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가 대서양에서 스페인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그리스인들이 정복한 동부 지역까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제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으로 자유롭고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할 때, 언어, 그리스어는 세계의 링구아 프랑카였습니다. 즉, 상품 거래 분야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어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라틴어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 당시의 그리스어로 말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전 그리스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이네 는 공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성경은 주로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그리스어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학문적 그리스어, 고도로 교육받은 그리스어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언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아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을지라도, 거리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것은 상업 사회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많았습니다.

그 구절, 사회적 지위를 강조해 주세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그 문제로 많이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에는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 dignitas . 그들은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핫도그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먹었고, 사회적 지위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공통성을 방해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생성된 가치들은 십자가의 메시지와 상반되는데, 특히 명예와 지위와 관련된 가치들은 권력이 무자비함으로 나타나고 자기 계발만이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로마 사회 시스템에서 매우 기본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법원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이 경쟁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적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 경쟁은 온갖 방식으로 표면화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또 다른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치, 유대-기독교의 가치가 있고, 저는 유대-기독교의 가치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기독교는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는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버려지지 않았지만 흡수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에서 반복되지 않는 많은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기독교 윤리의 도덕적 섬유의 일부였고, 많은 로마 윤리와 그 그리스-로마 세계의 윤리와 같았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Garland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따르면, 고린도전서의 세계는 개인주의라는 다양한 우물에서 깊이 마신 교회를 반영합니다.

권력의 샘은 지위를 낳습니다. 글썄요, 제가 사는 세상과 당신이 사는 세상, 특히 서구 세계에서 사는 세상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인간 본성은 개인주의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통제할 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세기 로마 세계에서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정신, 세상의 지혜는 개인주의와 힘에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지위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만들었다. 지위에 따른 성적 학대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법원을 조작했다. 이 모든 것이 코린트와 같은 로마 식민지의 일상 생활의 일부였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로마의 세속적 가치 체계에서 성경적 가치 체계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갈등은 가치에 대한 것이고,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적 중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유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안타깝게도, 그건 잘못된 나무를 향해 짓는 소리였습니다. 기독교는 목적에 의해 주도되는 삶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덕에 의해 주도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리스어에는 목적 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적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서 목적과 목표가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신약의 덕에 의해 주도되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가상적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바울은 그들을 로마의 개인주의적 권력 투쟁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정 문화권에 살고 있고, 저는 종종 이 예를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물고기가 젖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나요? 물고기가 젖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종 그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래전에 강의에서 그 그림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생물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의 후에 해양 생물학자가 되어서 물고기가 젖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설명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모든 물고기는 점액으로 덮여 있고, 그 점액이 물고기와 주변 환경 사이에 장벽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와 같은 물고기를 잡고 놓아줄 때, 다룰 때 그 전체를 잡고 문지르고 들어올리고 문지르지 않습니다. 턱을 잡고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면서 물고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왜? 그 물고기는 어차피 만지고 싶지 않은 끈적끈적한 보호막이 있어서 물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벽이고, 그것을 만져서 제거하면 그 물고기는 물 속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자는 흥미롭게도 낚시 대회가 있을 때 생물학자가 그 끈적끈적한 액체를 채취해서 그 물고기가 어느 호수에서 잡혔는지 말해줄 수 있어서 그 물고기가 특정 물에서 잡혀야 할 때 아무도 속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물고기는 젖는 것을 느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물고기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나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답은 '아니요' 입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자랍니다. 당신은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당신 주변의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살라고 부르는 미덕과 윤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이고, 그 윤리를 우리가 활동하는 세상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젖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위반하는 부분을 식별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숙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물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고,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말고, 그리스도적으로 지혜롭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특히 1장과 4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45분 정도 했고, 저는 이것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5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다른 서론에서 조금 지나쳤지만 22 페이지에서 멈추고 다음 강의에서 22페이지 하단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이 베이커에서 출판한 데이비드 갈랜드의 고린도전서에 대한 책을 구매하고, 그 서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빈틈을 메우고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고 다시 읽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문화의 종류를 이해하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뵈겠습니다.

이것은 게리 미더스 박사가 고린도전서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6강, 고린도전서 서문, 1부입니다.